



장려상



자랑스러운 기억

—  
신창용



1981년, 사단 예하연대에서 사단으로 전임하고  
1개월 후쯤 있었던 나의 군수장교 시절 이야기다.

역시,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를 했어야 했나?



일일회의 분위기가 무겁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대대장님이 민망해하실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테니 보고를  
생략하는게 나을 거라 생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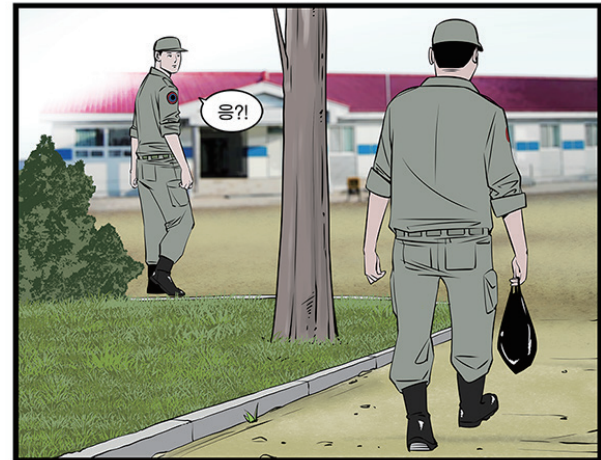
군수장교는  
잠깐 보자.

그러나 대대장님 입장에서 참모장교인 내가  
반기를 든거라 여길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대대장님.

이 곤란한 상황은 어제 대대장님 숙소 근무병인  
김일병이 들고가던 비닐봉지에서 시작 되었다.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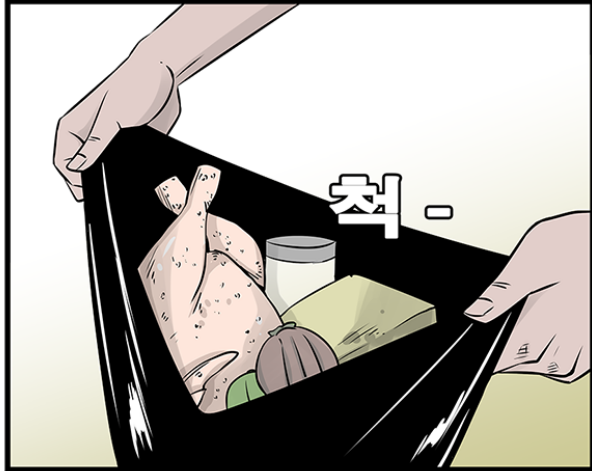
김 일병,  
그게 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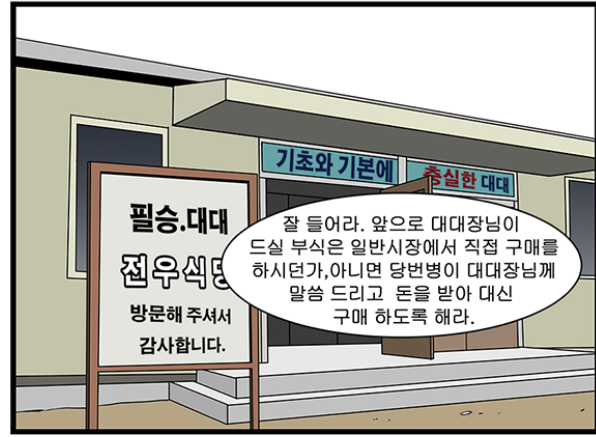
단결!

예, 대대장님 관사에 가지고  
가는 부식들입니다.

봉지 안에는 생닭과 튀긴 통닭 양파 고춧가루등이 있었고  
김일병의 대답은 거리낌 없고 자연스러웠다.



나는 곧바로 당번병과 보급 담당 부사관을  
취사장으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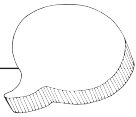
당번병은 대대장님께 이 내용을 내가 지시 했다고 말씀 드리고, 보급선임 하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대대장님 관사 뿐 아니라 어느 간부라도 사적으로 부대의 부식을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는 곧바로 당번병과 보급 담당 부사관을  
취사장으로 불렀다.

이 같은 조치는 자칫 직속상관에게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일이 었다.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나의 성품과 군수장교라는 직책상 당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만연했던 부식의 외부 반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





물론, 대대장님 입장에선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대장님이 원칙을 지키는 나를 질책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대대장님이 원칙을 지키는 나를 질책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옳다해도 직속상관 면전에서 나의 행동은 스스로 항명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고 적잖이 당황하신 대대장님 만큼 나 또한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대대장님과 나는 소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부대 내에서 안전사고로 병사 1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대에는 대대장부터 휘하 간부까지 이런 사고처리에 관한 경험이 전무해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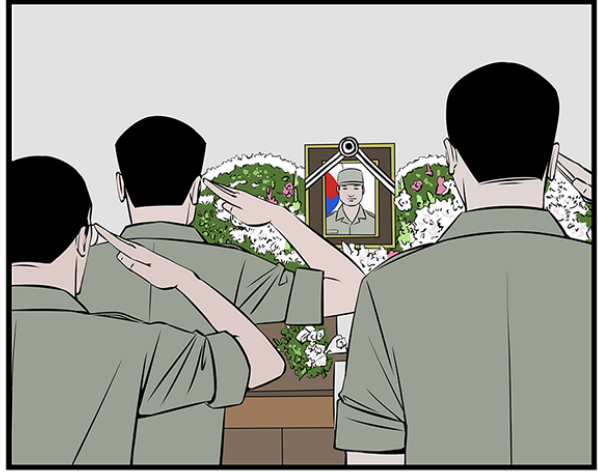


나는 이 곳으로 전입 오기 전 연대급 예하부대에서 10여건의 비슷한 사고처리를 한 경험이 있어 내가 주도적으로 사고처리를 하겠노라 대대장님께 말씀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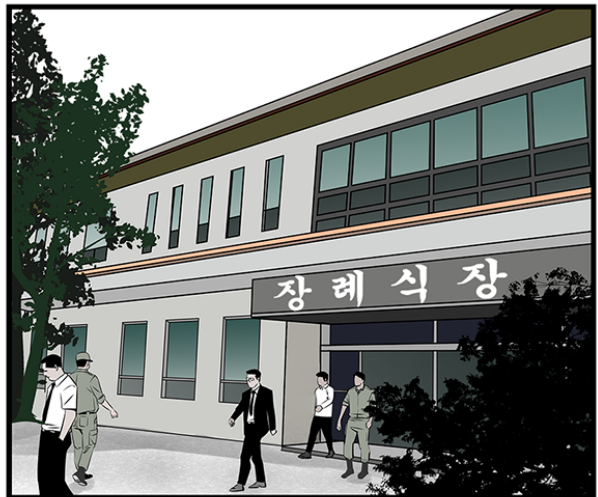


대대장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하고 이 사건은 다른 간부들과 협조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원만히 처리 하겠습니다.

사건 처리를 맡은 나는 유족과의 문제, 장례절차등을 일사분란하고 완벽하게 조치 하였다.



이 사건이 종료될 때쯤 업친 데 겹친 격으로 동료 중대장의 어린 아들이 관사 지역에서 민간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또 발생했다.



나는 이번에도 2주일 동안 동분서주 하며 내 일처럼 모든것을 순조롭게 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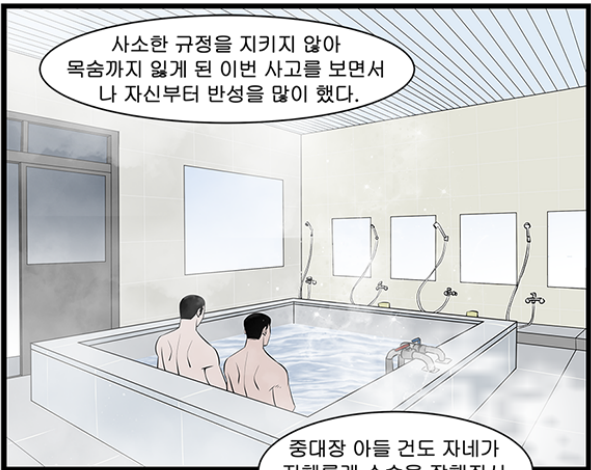
예,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사고 수습이 끝난 다음날,  
대대장님이 날 찾아 오셨다.



군수장교, 자네 오늘  
나하고 사단회관에서  
목욕을 하고 식사도  
함께 하자.

예?...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목숨까지 잃게 된 이번 사고를 보면서  
나 자신부터 반성을 많이 했다.

중대장 아들 건도 자네가  
지혜롭게 수습을 잘해줘서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지난번 식당의 부식 반출과 관련해서  
내가 자네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하고자 한다.  
내가 분명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재발  
하지 않도록 나부터 솔선수범  
하도록 하지.

대..대대장님.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지난번 식당의 부식 반출과 관련해서  
내가 자네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하고자 한다.  
내가 분명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재발  
하지 않도록 나부터 솔선수범  
하도록 하지.

대..대대장님.



사실, 자네의  
지적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범죄 행위에 다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네에게 사과 하고 싶다.

내색은 안했지만 나 또한 마음  
고생이 심했던지라 대대장님의  
사과가 너무 다행스럽고  
반가워 될 듯이 기뻐다.



저도 버릇없이  
말씀 드려  
대대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대대장님에 대한  
반감은 추후도  
없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대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  
대대장님께 칭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장님은 식사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셨고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존경심이 절로 생겼다.

나의 문제 제기로 관행처럼 여겨졌던 폐습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부대 분위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거란 우려는 대대장님의 사과와 재발방지 지시로 말끔히 해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조회시에도 대대장님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식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재발방지를 지시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부대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고 난 다소 무모해 보였지만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나의 판단이 결국,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젊은 날 나의 판단은 자랑스런 기억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